

한국 자폐증 진단검사 (Korean Autism Diagnostic Scale; K-ADS)

1. 검사 소개

- 이 검사는 자폐증라고 진단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전국 규모의 표준화된 진단도구이다(강위영, 윤치연, 2004). 자폐증의 세 가지 주요 증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K-ADS는 자폐증을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준참조검사이다.

2. 검사 대상

- 자폐증이라고 의심되는 3~20세 아동 및 청소년의 그 증상 및 심도를 평가할 수 있다.

3. 검사 구성 및 특징

- 이 검사는 3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, 상동행동(stereotypic behavior) 14개, 의사소통(communication) 14개, 사회적 상호작용(social interaction) 14개 문항 등 총 4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.
- 검사 문항은 미국정신의학회의 DSM-IV-TR의 진단기준을 토대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안면타당도를 가지고 있어 자폐증을 진단하고 판별하는 데 효과적이다.
- 특히 하위검사별로 척도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폐지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,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심한지를 알 수 있고, 전체적인 자폐 심도를 알 수 있다.
- 이러한 자료는 자폐 진단과 평가는 물론 치료와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.
- 이 검사는 강력한 심리측정적 도구로서 개별화교육프로그램(IEP)에서 변화 및 중재 목표를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4. 실시 요령

- K-ADS는 실시 및 채점이 용이하다. 검사 대상과 적어도 2주 이상 정기적으로 접촉해 온 교사, 치료사 및 부모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3개의 하위검사를 완성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가 걸린다. 평정자는 문항 1에서 문항 42번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평정해야 한다. 검사대상의 행동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검사를 중단하고 정확히 관찰한 후 평가해야 한다. 단 말, 신호 등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영역을 생략할 수 있다.

5. 채점 요령

- ◎ 하위검사별로 검사대상의 자폐 증상에 관한 행동을 평정한 후에는, 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평정한 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. 먼저 ① 원점수를 계산한 후, ② 그 다음에 원점수를 척도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전환하고, ③ 각 하위검사의 척도점수를 합하여 자폐 지수를 산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.

6. 결과 해석

- ◎ K-ADS는 자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표준-참조검사이다. 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검사를 실하여 다른 자폐 아동 및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자폐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. 이 검사는 제12장의 한국ADHD진단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

7. 웹기반 평가시스템 이용

- ◎ <인터넷> 상에서도 평가의 효율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검사내용 및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기반 코스웨어(Web-based Courseware)로 제작한 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(심리검사 전문기관: www.tespia.kr). 본 평가 시스템을 통해 부모, 교사 및 임상가 등 누구든지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on-line 상에서 자폐 평가는 물론 교육 및 치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8. 출처 및 개발자

- ◎ 강위영, 윤치연(2004). 한국자폐증진단검사. 부산: 테스피아.